

“닫혔던 시설 열리니 마음도 열려요”...시민들 모처럼 활기

거리두기 완화로 한달만에 문 여는 광주 공공시설 가보니

3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우산동 우산수영장 제3강의실이 모처럼 음악소리로 가득찼다.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수영장이 한 달만에 문을 열고 '댄스 다이어트' 문화프로그램을 재개하면서다.

모처럼 강의실을 찾은 10여명의 주부들은 모처럼 '집콕 탈출'의 기쁨을 즐기겠다는 듯 흥겹게 몸을 움직였다.

이들은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지 맘을 흘리면서도 마스크는 벗지 않았고 '2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업에 참여했다.

광주시가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따라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지역 공공시설들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

이날 지역민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을 재개한 시설만 1917곳으로, 광주지역 5개자치구 대상시설(3393곳)의 56.4% 수준으로, 시설마다 시민들 발길로 북적였다. 오는 6일부터는 경로당 1331곳(39.2%)도 노인들의 무더위 쉼터로 문을 연다.

수영장·노인쉼터 등 복직이교
방향 맞아 도서관도 잇단 발길
집콕 탈출에 스트레스도 훌훌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하며 힐링

공공시설을 찾은 시민들은 “코로나로 우울했던 생활에서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 같다”며 기대의 목소리를 내며 재개장을 반겼다.

이날 재개장한 우산수영장 내 다이어트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원경(여·56)씨는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면서 “한달 동안 집에만 있어 2kg가량 썩 살을 빼려면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말했다.

우산수영장을 찾은 박규자(여·63)씨도 “한달만에 수영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다”며 탈의실로 바쁘게 뛰어갔다.

광주 염주체육관 실내수영장도 찾는 이들로 북적였다. 이우라(여·28)씨는 “수영

장이 문을 닫아 20년 간 해오던 취미생활을 하지 못해 속상했는데,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회원 등록을 한 지난달 30일부터 오늘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날 문을 연 도서관도 박학을 맞은 아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시 북구 일곡 도서관의 경우 오전부터 50여명의 시민들이 찾았고 책을 보거나 열람실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공부원시습 준비를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는 김민호(38)씨는 “한자리씩 띄어 앉아 처음엔 어색했지만 오히려 쾌적해 공부하는데 집중된다”면서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효율성도 높아 도서관을 오게 됐다”고 말했다.

도서관 지하 1층 어린이 도서관에도 이른 시각부터 10여명의 어린이들이 찾아 책을 읽고 있었다. 5살과 10살짜리 자녀를 데리고 온 박영경(여·38)씨는 “한달 동안 도서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책을 빌리기가 어려워 중고책을 구입해봐야 했다”면서 “아이들과 한 달만에 왔는데 리모델링까지 해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공공시설들은 재개장을 한 시설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



3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우산수영장의 다이어트댄스 수업에 참가한 주부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쓴 채 댄스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도록 하기 위해 방역 지침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모든 출입자들에 대한 발열체온을 거쳐 입장을 허락했고 출입자 명부도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마스크

를 착용한 경우에만 입장토록 했다.

김원준 우산수영장센터장은 “시설들의 방역 지침 준수 뿐 아니라 시설을 찾는 회원들의 개인 방역지침 준수도 필수적”이라

며 “회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재개

수험생들 마스크 쓴 채 응시
틈틈히 운동기구 소독 등 만전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던 광주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이 3일부터 광주시 북구 동림동 동림다목적 체육관에서 시행됐다. 애초 지난 4월 27일 예정된 것에 비해 4개월 가량 늦춰졌다.

3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3일 동안 2020년 광주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203명에 대해 체력시험이 진행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격력시험 53명을 대상으로 체력시험이 치러졌고 4일에는 82명, 5일 68명이 시험을 치른다.

최고기온이 32.2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에도, 응시자들은 1시간 전부터 시험장을 찾아 주차장을 뛰거나 스트레칭을 하며 시험에 대비하고 있었다.

소방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체육관 내부가 아닌, 강당 밖에 천막을 설치해 수험생들의 대기 공간을 준비했다. 시험장인 강당에도 감독관과 시험관 등 50명을 넘지 않도록 입장을 제한했다.

수험생들도 모두 마스크를 쓴 채 6개 종목(약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 굽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의 체력시험에 응시했다. 더운 날씨에 전신을 활용해야 하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시험에 임하다보니 응시생들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됐다.

소방본부는 응시생별로 시험이 끝날 때마다 강당에 마련된 운동 기구를 소독하면서 시험을 진행했다.

응시생 서태석(35)씨는 “허리를 다쳐 기존 시험 기간에 맞춰 준비하기 어려웠는데 코로나로 일정이 연기돼 도움이 됐다”면서 “코로나로 취업난도 심한데,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400개 마을에 마을번호사 152명 위촉

전남 22개 시·군 400개 지역에 마을번호사 152명이 신규 위촉,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3일 전남지역을 비롯, 소도시 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번호사’ 1349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을번호사 제도는 읍·면·동 소규모 지자체 주민들이 마을에 배정된 번호사에 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전남에서는 올해 181개 무번호촌(번호사가 없는 마을) 등 400개 지역에서 마을번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안내를 받거나 마을번호사 명단에서 지역 담당 번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하면 된다. 법무부는 또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지정, ‘마을 단위 통합 구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은 마을 번호사 제도 소개 및 홍보, 마을번호사 연락처 및 상담방법 안내, 마을번호사 현장방문 일정 조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인 남편, 외국인과 두 차례 결혼 전력이 이유로 베트남 국적의 부인 장기체류 자격 불허는 위법”

한국인 남편의 이혼 경력을 이유로 베트남 국적의 부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허가해주지 않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내부 사무처리기준만을 근거로 혼인한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 A씨가 광주출입국의 국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 기존 방문동거(F-1)로 체류해온 자격을 결혼이민(F-6)으로 변경해달라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했다가 ‘한국인 남편이 최근 5년 이내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출입국사무소는 ‘초청인이 사증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 동거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

으면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을 불허한다’는 내부 사무처리기준 등을 근거로 A씨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남편은 A씨 이외 두 차례의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내부사무처리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A씨 신청을 불허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혼인의 진정성 및 정착적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배우자가 과거 5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일률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혼인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고 남편의 병간호를 하는 등 진정한 혼인 관계에 있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A씨 남편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침해받게 됐다”며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할머니들 시간 없는데...강제동원 배상 16개월째 미이행 시민모임, 미쓰비시 자산 매각 공시송달 요청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명령이 16개월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측 대리인은 압류 상태인 미쓰비시 자산 매각과 관련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지난달 31일 대전자법에 요청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계사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원고 측 대리인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김정희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미쓰비시 측은 송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며 “원고들은 현재 90세가 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대부분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언제까지 집행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현재 재판 과정에서 원고 5명 중 1명은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별세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815 해방대출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소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